

지역 소식통

정읍시, 자활사업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지난 9월 정읍지역자활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는 정읍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경사를 맞았다. 정읍시는 민·관이 협력해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온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심사는 △자활근로 활성화 △자활형성사업 지원 △자활사업 운영 등 총 4개 분야로 엄격하게 이뤄졌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역 내 관공서 및 공공시설과 연계한 새로운 일자리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사업단을 운영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 사례로는 대량 세탁물을 처리하는 공장형 '신화세탁사업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재개발원 및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입점한 '카페보네사업단'이 꼽힌다. 또한, 정읍의 대표 특산물인 생과자 재료를 활용한 '전처리사업단'을 운영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복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하나약국'

공공심야약국 지정

부안군은 2026년에도 군민들의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2026년 지정 공공심야약국은 하나약국(부안읍 부령로 29, 혜성병원 앞 위치)으로 매달 둘째·넷째주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밤 9시부터 12시까지(3시간) 심야약국을 운영한다.

하나약국 대표자는 "비상시 군민이 믿고 안심하며 찾을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반면 2025년도 공공심야약국인 부안신세약국은 오는 30일을 끝으로 심야약국 운영을 종료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스마트 방법 인프라 구축 '맞손'

부안군-KT-부안경찰서, 마을방범 CCTV 통합사업 추진... 군민 안전 강화 기대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24일, KT 및 부안경찰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군민 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을 위한 '부안군 마을방범 CCTV 통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부안군 483개 전체 마을에 차량번호인식, 지능형 선별관제 등 AI 기반 영상 분석과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All-in-One CCTV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으로 지역 사회의 방법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부안군은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을 주도하고 스마트 방법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투자를 담당한다.

KT는 부안군 전역에 CCTV 전용회선 483개소와 카메라 1,674대를 설치하며, 부안군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지능형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기술적 역할을 수행한다.

부안경찰서는 통합관제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상행동, 침입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 및 대응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CCTV 데이터를 활용한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24일, KT 및 부안경찰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군민 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을 위한 '부안군 마을방범 CCTV 통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권익현 부안군수는 "KT, 부안경찰서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스마트 방법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어 뜻깊다"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군의 최우선 과제"임을 밝혔다.

부안경찰서장 역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신속한 출동 및 대응 체계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능형 CCTV 도입이 범죄 예방 활동의 효율

성을 극대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KT 김진철 전남전북광역본부장은 "부안군의 스마트 방법 정책에 함께 하게 되어 기쁘며, KT의 기술력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군은 이번 통합사업을 통해 군민의 생활 안전 만족도를 높이고, 첨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 도시 구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데이터 농업' 시대 활짝

과학영농 통합관제체계 구축 완료... 작물 생육 데이터 통해 관리

정읍시가 작물의 생육 상태를 데이터로 통해 관리하는 '과학영농'의 기틀을 마련했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3일 제2청사 대강당에서 '과학영농 통합관제체계 구축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농촌진흥청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을 비롯해 실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될 관내 농가 등 30여 명이 참석해 구축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활용 및 확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작물이 자라는 환경과 뿌리 부분(근권부)의 생육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던 온도, 습도, 광량, 이산화탄소(CO₂) 등의 재배 환경 정보와 배지(식물을 지지하는 토양 등) 무게, 수분 함유량(함수율), 배출되는 영양액의 농도(EC) 및 산도(pH)

등 생육 관련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했다. 이를 통해 농가는 작물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더 정밀한 재배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아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장에 센서를 설치하는 기초 단계부터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 유관기관과의 데이터 연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완성된 통합관제체계는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과 이상 상황 발생 시 알림 기능, 농가별 맞춤형 분석, AI(인공지능) 기반의 농업 정보 제공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능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농촌진흥청과 공유해 국가 단위의 생육 모델 구축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 특성에 맞는 '정읍형 생육 모델'을 확립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온라인쇼핑몰 '고창마켓', 22억 매출

올해 절일배추 단일품목 판매액 5000만원 기록

고창군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고창마켓'이 혁신적인 플랫폼 전략과 집배송 시스템을 통해 연 매출 22억원 돌파했다고 밝혔다.

고창마켓은 최근 김장 시즌을 맞아 판매된 절일배추 단일 품목의 판매액이 5000만원을 기록하는 등 지난 19일 기준 연총매출액 22억원을 달성했다.

고창마켓의 성장은 집배송 등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다양한 SNS채널(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등)을 활용한 마케팅 확대가 꼽히고 있다.

또 최근 홈페이지 리뉴얼과 전용 앱(App) 개발을 완료해 본격적인 운영

에 들어갔다.

지역농산물 쇼핑몰의 특성상 70대 이상의 이용자 등에게도 쉽고 편하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배려가 돋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앱을 통해 실시간 알림, 특별 할인 정보 등을 제공해 고객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냉장과 냉동 품목까지 배송 범위를 확대하고, 연령별·지역별 구매패턴 등 확보된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매출향상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에 나설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공익형 육아용품 판매점 '고창아이랑' 호평

터미널 앞 위치·지역자활센터와 자활근로사업단 형태로 운영



고창군 공익형 출산·육아용품 전문 판매점 '고창아이랑'이 계절별 육아수요에 맞춘 품목 운영과 안정적인 매장 관리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고창아이랑'은 고창군과 고창지역 자활센터가 협력해 자활근로사업단 형태로 운영되는 공익형 매장이자. 관

내 유일했던 기존 육아용품 전문점인 문을 닫으면서 군민들이 관외로 이동해 구매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1일 문을 열었다.

매장은 30㎡(약 12평) 규모로 고창읍 중앙로 180(터미널 앞)에 위치하며, 신생아 내의·유아복·출산용품 등 필수 육아용품을 합리적 가격에 제공

하고 있다.

또한 자활사업단에서 생산한 두부과자 등 건강 먹거리도 함께 판매해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고창아이랑'은 개소 5개월간(7~11월) 총 1379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지역 내 육아 수요 충족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방한 내의, 겨울 조끼, 기모 상하세트 등 겨울철 의류 수요가 늘면서 매장 방문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활근로사업과 연계해 취약계층 3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사회 복지와 민생경제,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실현하는 공익형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창군수는 "고창아이랑은 군민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이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고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